

대학원 선배 만나기 보고서

대학원 선배와 대화를 나누며 평소 대학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대학원 선배에게 했던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자면,

Q: 대학원에 가면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일이 많이 힘든가요?

A: 그런 잠을 잘 못자고 힘든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중요한 건 연구 실마다 다르다.

Q: 대학원에 가려면 학점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A: 제일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열정이고, 학점은 학교를 안 다닌 정도만 아니면 괜찮다.

Q: 대학원에 가려면 코딩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나요?

A: 이것 또한 연구실마다 다르지만, 데이터마이닝 연구실을 기준으로는 파이썬만 어느 정도 다루면 되고 특별히 잘하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잘해둬서 나쁠 건 전혀 없다.

Q: 인공지능학부는 거의 무조건 석사 학위를 취득해야 하나요?

A: 인공지능으로 취업하려면 기업들이 석사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득하는 것이 좋다.

Q: 원래 있던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생각하던 진로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연구실로 가면 교수님이 안 좋게 보시나요?

A: 이해하실 만한 이유로 말씀드리면 안 좋게 보시지 않는다.

그 외로 대학원 선배님이 추가로 설명해 주신 점은 연구생이 되면 학교에 자기 자리가 생기고 큰 연구실의 경우 데스크탑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며, 출근과 퇴근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논문을 써서 권위 있는 학회에 등재되면 된다. 학부 연구생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장점으로는 기간이 짧기도 하고 연구실에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 연구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는데 미리 경험하고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실은 수학이 정말 중요한데 미적분과 선형 대수는 따로 공부해도 될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코딩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로써 실현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또한 인공지능학부생으로써 대학원 진학에 관심이 있는데 평소 궁금하던 학점이나 코딩 실력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일단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찾는 것과 미적분과 선형대수를 추가로 더 공부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작은 프로젝트라도 개인 또는 팀을 꾸려서 방학기간 동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의문점과 궁금증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대학원에 대한 막막함을 해결하고 단기적인 목표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